

7월12일(월)/로마서2:17~29

**제목: 형식 보다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비판한다. 유대인들은 자랑거리가 많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다(17절). 그들은 다신교적 상황에서 자신들이 유일신을 섬긴다는 것을 자랑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자랑하였다(18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자랑했다. 그들은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18절).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선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다(20절).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는 법들을 지키고 살았던 것, 즉 훈련받았다는 것을 자랑했다(20절). 그런데 이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었다(21~22절).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행함(내면)이 없다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표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할례 받았다는 것도 무(無)로, 즉 무 할례로 돌아간다고 했다(25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을 내세우지 말고 마음의 할례, 즉 윤리적 삶에 충실하라고 했다(29절). 우리도 교회에서 종교적인 다양한 의식들을 준수하지만 내실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7월13일(화)/로마서3:1~8

**제목: 필요악이란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같이 심판을 받으면 유대인의 특권은 무엇인가 질문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답하기를 유대인의 특권은 그들만이 가진 ‘말씀’에 있다고 했다(2절). 또 어떤 유대인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불신앙적인 유대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가?"(3절)라는 질문을 한 것 같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나”고 일축했다(4절). 어떤 유대인 중에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면 왜 내가 죄인이 취급을 받는가? 상을 주어야지” (7절) 이런 꾀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었던 같다. 이 논리는 가롯유다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는데 일조 했는데 가롯유다에게 상을 주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는 말과 같다. 말하자면 필요악은 악이 아니라 상급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당신의 논리는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8절). 바울은 필요악이 의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 죄는 어디까지 죄이다. 선한 거짓말도 없다. 거짓말이라는 말과 선함이라는 말이 함께 양립될 수 없다.

7월14일(수)/로마서3:9~18

**제목: 성도는 죄 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과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전혀 나은 것이 없다”고 대답한 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하였다(9절). 성경은 사람에게 의는 존재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않고, 모두다 결길로 나가 무익하게 되고 쓸모없게 되었다고 하였다(10~12절).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이 나온다. 사람의 언어에는 독사의 독과 저주와 독설이 있고 사람의 행동은 항상 남을 죽이는데 에리하고, 사람의 성품은 파멸과 잔인이 있고, 마음의 창문인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13~18절). 바울은 계속해서 죄의 실체, 죄의 인격체를 강조하고 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12절)라는 말은 사람이란 죄가 주장하는 대로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사람은 죄가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는 존재이다. 사람의 몸, 구조, 의식, 판단, 지혜가 다 죄에 붙들려 있다.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죄 관이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은혜관이 분명해진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어떤 형편에 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

7월15일(목)/로마서3:19~31

**제목: 율법은 사람을 절망시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도록 하신 것은 사람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19~20절). 율법의 기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절망과 자포자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절망하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의를 보내셨다(21절). 여기서 ‘의’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의’를 받게 된다(22~24절)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마찬가지이다(29~30절).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사람에게 보이셨다. 종합병원에서 진찰받고 병의 실체가 드러나듯이 사람이 율법 앞에 서면 죄의 완전한 실체가 드러난다. 세상에서 가장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완벽한 채 하는 사람이다. 완벽한 채 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알본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 항상 절망하는 사람은 죄지는 사람을 보면 꼭 자기 같아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좌절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드릴 수 없다.

7월16일(금)/로마서4:1~25 (1)

### 제목: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그 죄가 가리어짐을 받았다면 복이다(7절).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것을 죄로 인정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이다(8절) 하나님이 이런 복과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인가? 믿는 자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았다(3절). 물론 아브라함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합2:4) 하였지만 그도 역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하박국의 믿음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나 그 맥락과 결과는 같다고 한다. 이 셋은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맥락에서 같은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고 상이다. 착해서 상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니다. 그러나 죄인인데 상을 받았다면 그것은 복이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복이 아니다. 데모하고 투쟁해서 얻었다면 복이 아니다. 복은 공짜로 받은 것이어야 한다. 구원은 공짜이지 값이 아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런 자아인식을 가져야 한다. “나는 복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나의 하루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